'한국', '한국 문화' 표현한 주빈국관

5개 존zone에서 한국출판역사와 책, 작가, 문화 · 예술 소개

주빈국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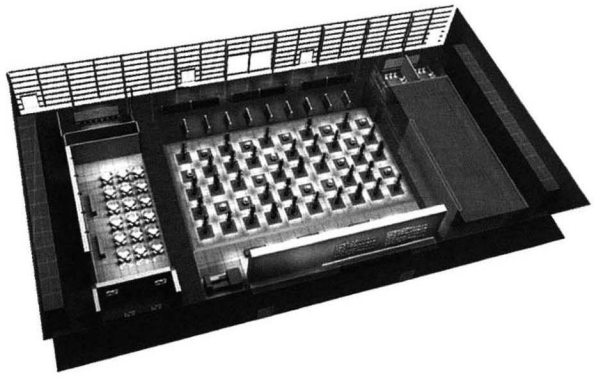
주빈국관 'Enter Korea'는 출판문화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과거와 현재 모습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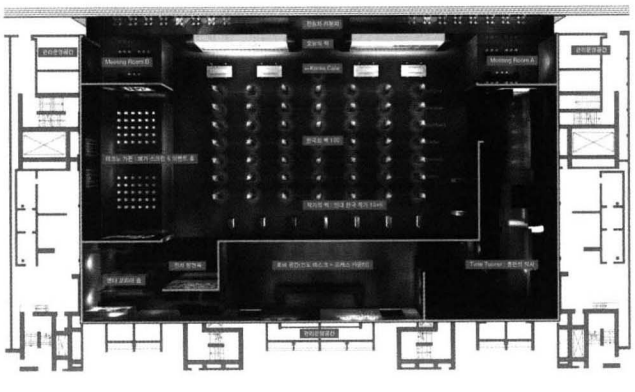
주빈국관에선 먼저 '도입부'를 통해 한국의 출판문화의 과거 유산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과 금속활자본, 과학적 문자와 고급 제지기술 등을 통해 과거 한국이 세계 출판의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왔음을 알리고자 한다. 도입부를 통해 보여준 '과거'를 지나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한국문학의 작가들과 국내외에서 출판된 1,000여 권의 책 등 한국 출판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출판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하여 새로운 출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시공간의 중앙에서 책이 정보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매체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제시한다. 이곳에 전시되는 '한국의 책 100'권의 콘텐츠는 멀티미디어 이-북E-Book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며, 동시에 행사장 안과 밖에서 각종 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간을 초월해 사물, 사람, 정보를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의 U-Book Ubiquitous Book을 구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시장 내의 이벤트 공간에서는 현재 한국문화의 생생한 단면을 직접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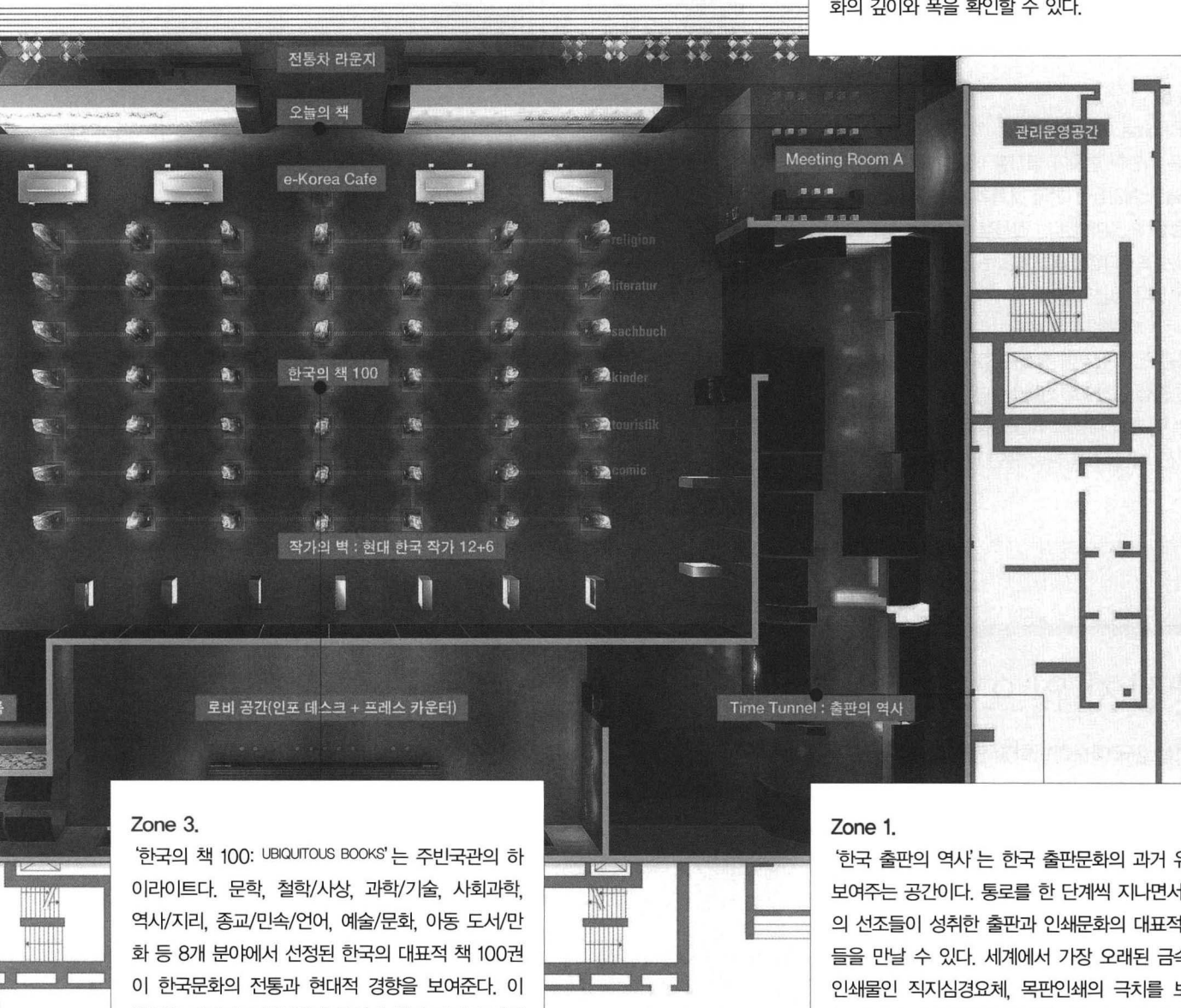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주빈국관 전시 'Enter Korea'에선 한국의 과거 유산과 현재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을 한국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제공 :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 홍보팀





Zone 2.
'오늘의 책'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비치하여 관람객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개념의 공간이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책을 모은 'Books on Korea',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 중 외국어로 번역된 책을 모은 '한국문학 번역작품', 한국에서 출판된 책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된 것을 모은 '한국의 아름다운 책'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모두 1,800여 권의 책을 전시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문화와 대화하는 한국문화의 깊이와 폭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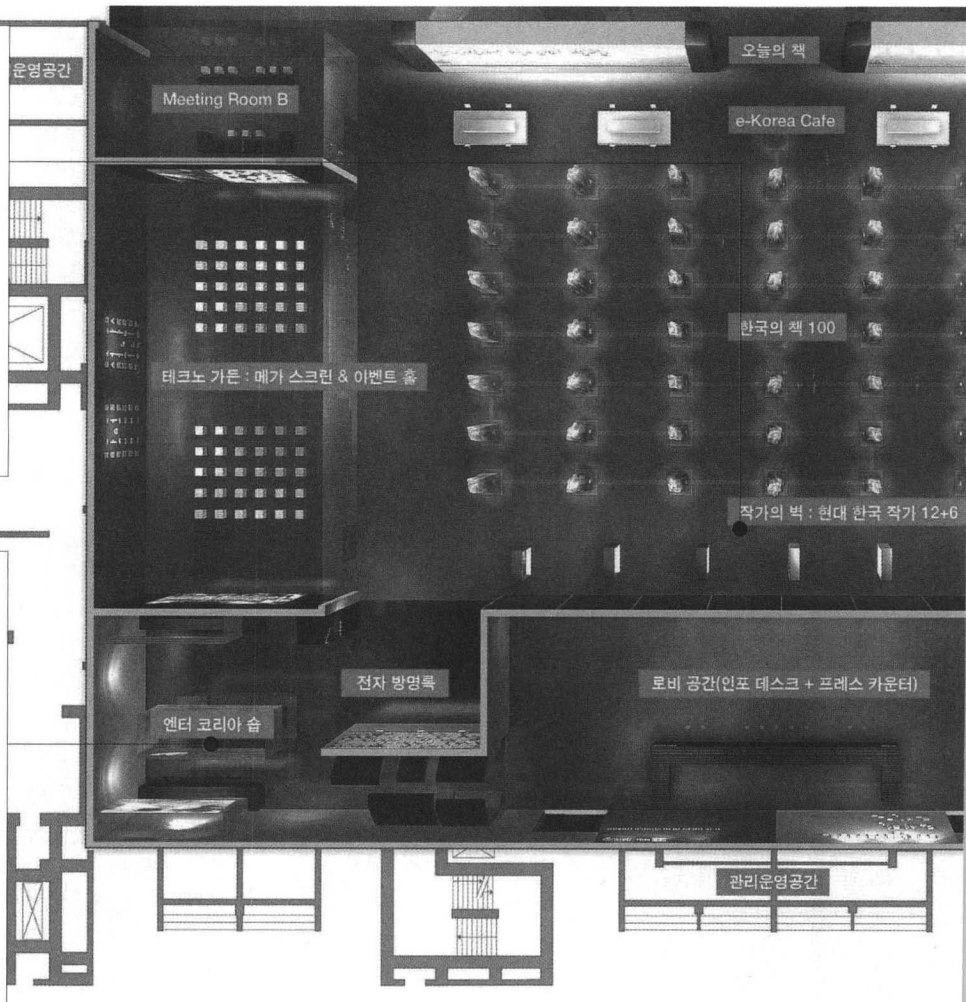


Zone 3.
'한국의 책 100: UBIQUITOUS BOOKS'는 주빈국관의 하이라이트다. 문학, 철학/사상, 과학/기술, 사회과학, 역사/지리, 종교/민속/언어, 예술/문화, 아동 도서/만화 등 8개 분야에서 선정된 한국의 대표적 책 100권이 한국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 책들은 페이퍼로 전시됨과 동시에 첨단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며, 그 내용은 행사장 안과 밖에서 각종 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간을 초월해 사물, 사람, 정보를 연결하는 U-Book을 구현하는 것이다.

Zone 1.
'한국 출판의 역사'는 한국 출판문화의 과거 유산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통로를 한 단계씩 지나면서 한국의 선조들이 성취한 출판과 인쇄문화의 대표적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경요체, 목판인쇄의 극치를 보여주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희귀한 기록문화 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한글'이라는 한국어의 과학적 문자 체계를 발명한 세종조 훈민정음 등은 한국이 세계 출판의 역사와 나란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 출판문화가 오랜 역사와 전통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폭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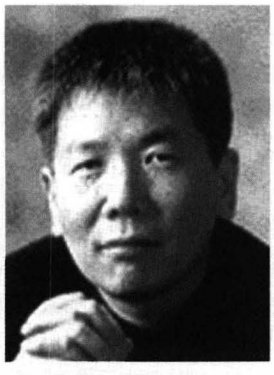
Zone 4.
'작가의 벽'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15인과 그들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책을 펼쳐보듯이 작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물이 설치된다. 한국작가를 처음 접하는 세계의 문학 애호가들을 위해 작가의 사진과 연혁, 대표적인 책들, 인터뷰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 기본적인 정보에서 작가의 깊은 이해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고 입체적인 만남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Zone 5.
'Enter korea 이벤트홀'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문화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행사들을 통해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의 현재를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장 어디서나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돼 있다.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대화하며 체험하는 이곳의 프로그램들은 주빈국관 전체 전시에 활력을 주며, 이곳을 가장 역동적인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행사가 없는 시간대에는 두 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자연, 건축 등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낯설지 않으면서 다르게

윤정섭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 교수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관을 설계한 윤정섭 교수는 주빈국관의 콘셉트는 '백색'에 있다고 밝혔다. 다섯 개 존Zone으로 구성된 주빈국관의 벽은 모두 흰색. 수많은 색상 중 굳이 흰색을 택한 이유를 묻자, 윤 교수는 "사실 색이 아니라 빛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흰빛을 통해 떠오르는 여명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의미다.

작년에 주빈국관 설계 제안을 받고 사전작업으로 다양한 전시관 콘셉트를 검토한 윤 교수는 "설계 당시 뭔가 다른 설치방법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문화를 주제로 개최된 전시들이 으레 비슷한 색채와 분위기를 내밀면서 일종의 관행을 만들고 있었던 데 대한 회의가 일었다.

"우리는 뭐든지 한국적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면서 오색빛을 사용하고 사물놀이 같은 이미지만 내밀죠. 그것이야말로 촌스러운 접근이거든요. 무조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키치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주빈국 행사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올림픽의 일원인만큼 똑같은 관행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명의 의미를 담은 흰색 컬러를 사용하면서 윤 교수가 기대하는 바는 주빈국관이 보편적이면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인들 눈에 지나치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일본 혹은 중국이란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래서 윤 교수는 "단순한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 정신에 스민 고급문화를 크리에이티브한 건축으로 실현한 것"이라며 주빈국관의 색깔, 공간구성 등 소소한 부분들에도 창조적 의미들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했다.

취재_ 김청연 기자